

(詩) 비둘기

안아보고싶게 귀여운
산비둘기 널곶마리
하늘끝까지보일듯이 맑은 주일날아침에
벼를거두어 뻗뻗한논에서
앞을다투어 요를주으며
어려운 니약이를 주고받으오.

날씬한 두나래로 조용한 공기를흔들어
두 마리가나오,
집에 색괴생각이나는몽양이오.

二月、十日

비둘기

안아보고 싶게 귀여운
산비둘기 일곱 마리
하늘 끝까지 보일 듯이 맑은 주일날 아침에
벼를 거두어 뻗뻗한 논에서
앞을 다투어 요를 주으며
어려운 이야기를 주고 받으오.

날씬한 두 나래로 조용한 공기를 흔들어
두 마리가 나오.
집에 새끼 생각이 나는 모양이오.

2. 10.